

# 필리핀의 석유산업



## 1. 머리말

급성장하는 ASEAN(동남아시아연합) 국가중 경제 일로에 있던 필리핀의 경제에도 성장의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 '94년 필리핀의 국민총생산(GNP)의 실질성장율은 5.5%를 달성하였고, '96년에는 6.5%(상공회의소 예측 8%)로 예측되고 있다. 필리핀은 주유기업의 순이익과 설비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전해소·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라모스정권의 안정도 일조하고 있다. 얼마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는 등「ASEAN 지역의 병자」로 동정을 받고 있던 필리핀은 현재 자신감에 차있는 상태다.

필리핀 경제는 아키노 정권이 탄생한 다음해인 '87년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이 있었으나, '89년 말 쿠테타미수사건과 화산분출이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감소해 왔다.

1992년 경제재건을 최대과제로 삼은 라모스정권이 출범한 이후, 라모스대통령은 다른 ASEAN 각국과 마찬가지로 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인프라정비에 힘을 기른 결과, 대필리핀투자는 '9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추세는 '95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회복세에 따라 석유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영석유정제·판매회사에 대한 일부외자를 도입하고, 국내민간자본도입을 추진하여, 원유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 2. 에너지 수요와 자급율

필리핀은 경제발전과 아울러 에너지자급화를 서두르고 있다. 필리핀 SHELL社가 작성한 에너지 수요전망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에너지 수요전망

(중유환산 1,000b/d)

	'93	'94	'99
신 에너지	35	34	36
석탄	31	32	98
지열	30	30	64
수력발전	23	23	36
석유	267	286	326
합계	386	405	560

(자료 : 필리핀 SHELL)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자급율을 현재 31%에서 2000년까지 33%로 높일 계획이다. 단, *Malampaya/Camago* 가스전의 개발분을 포함하면 46%까지 전망하고 있다.

SHELL社는 향후 에너지수요가 년 6~7% 증가하여, 중유환산으로 '94년 40.5만b/d에서 '99년까지 56만b/d 예상하여 현재 70%에 달하는 석유의존도를 '99년에는 58%로 낮출 계획이다.

필리핀의 에너지부는 동국의 에너지수요를 2010년까지 연 8.6%, 국내총생산(GDP)는 년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급비율은 천연가스개발동향에 따라 에너지의 2000년 이후의 자급율은 2000년 46%에서 수력발전자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2010년까지 2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3. 유전과 천연가스전 개발

필리핀의 원유생산은 1970년대후반에 *Palawan* 반도에서 *Nido* 유전이 발견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동

유전은 생산량과 매장량이 적어 현재의 생산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후 '80년말 *Palawan* 반도에서 여러 유망유전이 발견되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79년 23,500b/d, '93년 10,800b/d이었고, '93년말 매장량은 2억7,900만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Palawan* 서해안 유전개발(*West Linapacon, Malampaya*)에 전력하고 있다. '95년에는 총 13개의 굴정을 시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육상에서 48개, 근해에서 136개의 시추공을 뚫었으며, '93년말까지 생산한 원유는 4,870만배럴에 달했다. 현재 *Alcorn*社와 *Oxy. SHELL*社에 의해 '96년 6.5만~10만b/d, '97~'98년에 20만~25만b/d 수준으로 국내석유수요의 2/3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석유개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채굴중인 *West Linapacon* 유전은 지층때문에 해수가 유입되고,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SHELL이 발견한 *Malampaya* 유전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원유보다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West Linapacon* 유전은 *Palawan* 북서부 근해에서 약 50km 거리에 위치하고 수심이 200m인 유전으로 '92년 5월부터 1.5만b/d 규모로 생산을 시작한 필리핀유일의 상업유전이다. 동유전은 미국석유회사 *Alcorn*社가 필리핀 석유공사(PNOC)와,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고, 가채매장량은 1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동유전은 생산규모가 4.5만b/d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Alcorn*社 등은 종래의 국내판매에다가 외화 획득 목적으로 일본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간원재료에 이어 다음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92년 전체 수입금액중 12.7%인 20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일한 상업생산유전에서 원유수출로 단행한 것은 유전개발비를 외화수입으로 조기회수하고,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원유나 천연가스등 에너지상품의 수출 노하우를 쌓고자 하

는 이유에서였다.

西Linapacon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유향분이 적고, 비중도 가벼워 인도네시아産·베트남産과 아울러 고품질로 인식되고 있고 동아시아에도 중동산유국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어 新에너지 안정조달선으로 주목되고 있다.

#### 4. 석유수요

필리핀의 인구는 6,500만명, 석유수요는 현재 약 27.8만b/d로 '97년까지 32.5만b/d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 5%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필리핀 SHELL에 의하면 필리핀의 '93년 석유수요는 27.8만b/d로 그중 LPG가 6%, 휘발유 14%, 제트·등유가 9%, 디젤연료유 40%, 공업용중유가 31%였다. 휘발유 수요와 자동차 대수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볼 때,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자동차검사제도가 없고 폐차될 때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판매 증대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어, 마닐라 수도권에 도로건설이 긴급 과제로부각되고 있다.

'94년 필리핀의 국내자동차판매대수(승용차, 상용차, 버스, 트럭)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103,598대로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섰다. 이외 소형버스·특수소형버스의 연간판매대수는 약 8만대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합산하면 필리핀의 자동차 판매시장은 20

필리핀의 석유수요전망

(단위 : 천b/d)

	'93	'94	'99
휘 발 유	34.8	52.3	66.8
제트유·등유	23.2	34.9	44.5
경 유	92.8	149.0	199.4
중 유	81.4	100.1	116.1
기 타	21.1	30.6	38.8
합 계	253.3	366.9	465.6

필리핀의 석유수요증가율

(단위 : %/년)

	1993년~ 2000년	2000년~ 2005년	1993년~ 2000년
휘 발 유	6.0	5.0	5.6
제트유·등유	6.0	5.0	5.6
경 유	7.0	6.0	6.6
중 유	3.0	3.0	3.0
기 타	5.5	4.9	5.2
합 계	5.4	4.9	5.2

(자료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만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94년 필리핀의 자동차 판매는 승용차가 58,505대(전년비 13.7%증가), 상용차 41,129대(동 40.5%증가), 버스·트럭 3,964대(동 13.3%증가)를 기록해 특히 상용차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필리핀자동차공업회(AMII)에 따르면 필리핀경제가 향후 연 5~6%대로 성장한다면 자동차 판매는 연간 약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조건을 전제로 한 경우 2000년의 판매대수는 현재의 2배인 20만대

필리핀의 원유처리설비

(단위 : 만b/d)

	위 치	현 재	1994년말	1995년말	1996년말
PETRON	Bataan	16	16	16	18
SHELL	Batangas	7	11	11	11
Caltex	Batangas	7	8	8	8
PPC	Pililla	2	2	2	2
Chem Holdings	Nonok	-	-	-	7
합 계		32	37	37	46

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자동차판매는 경제성장률외에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의 불투명성에도 좌우된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결여는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5. 석유정제

'93년 석유제품수요는 27.8만b/d로 이중 제품의 수입은 6.5만b/d로 21.3만b/d가 국내정유공장에서 공급되었으나, 정제제품에서 남은 1.4만b/d는 수출되었다.

현재 원유, 석유제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제품수요의 4분의 1은 주로 경유와 전력중유로 수입되고 있다. 동국은 정제능력의 확대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국영석유정제·판매회사인 PETRON(국영종합에너지 기업의 PNOC의 전액출자회사)는 최근, 민영화를 위해 동사의 주식 40%를 사우디 ARAMCO(사우디국영석유회사)에 매각하고 20%를 국내민간자본에 할당할 계획이다. 사우디자본의 도입으로 원유의 안정공급을 기대할 수 있음과 아울러 정유설비의 고도화시에는 사우디로부터의 막대한 자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의 최대 석유정제판매사인 Petron은 석유의 공정소비자가격이 약 10%를 밀돌았어도 '94년은 과거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PETRON사는 '94년 12월, 사우디産 Arab Super Light 원유 40만배럴을 처음으로 수입했고, 향후에는 장기계약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SHELL사는 이 무렵 Batangas에 정제능력 11만b/d를 완성했으나 기시설중 7만b/d를 가동중지하여, 실제정제능력은 4만b/d 증가한 11만b/d가 됐으나 향후 석유 수요가 증가될 경우 가동중지설비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PETRON사는 '96년말까지 18만b/d로 증설할 계획

이며, '97년에는 1.5만b/d를 추가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10만b/d급 정유공장을 신설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Caltex社도 '98년까지 13만b/d로 증설할 계획이다.

## 6. 석유관련 규제완화

필리핀의 석유산업은 과거 20년동안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향후 3년간 에너지의 하류분야는 경쟁을 통하여 효율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가격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는 '97년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은 공정제, 제품수입은 허가제로 하고 있다.

동국의 에너지부는 완전자유화까지 이행기간 동안에 석유제품의 자동적가격조정 메커니즘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물론 자유화이후는 정유공장, 주유소 설치를 자유화하고, 제품수입도 자유화하고, 가격은 시장에 맡기게 된다.

이 가격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태국의 Thai Petrochemical Industry Public Co., Ltd와 Filipino chemical 그룹이 에너지부에 대하여 필리핀남부에 6.5만b/d 규모의 정유공장건설계획을 신청하여 '95년중 허가된다면 '98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석유수요는 아직 소규모이나 향후에는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석유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석유화학사업의 진흥에도 의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근해에는 석유자원의 부존량도 커서 개발촉진도 기대되고 있다. 국영석유회사 PNOC에 사우디 ARAMCO자본이 도입된 바와 같이 동국의 경제발전에는 외자도입이 어느정도 원활히 진전되느냐가 열쇠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정, 사회정세의 안정화를 여하히 도모할 것인가가 필리핀의 숙제이다. ♣ 〈주간 석유정책 4/25〉